東大時報

發行兼編輯人 白性郁
印刷人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 1685 1686 6901

(週刊)
月定讀料 貳百圜
一部定價 五拾圜

今週一言

國家에 있어서는 百姓이 가장 重要한 要素이며, 王은 가장 가벼운 要素이다.

—孟子—

四·一九革命한돐記念式

뿌린피와 씨를永遠히

政府·學生兩側서 各各擧行

四月十九日! 이날은 不正과 不義를 타도하고 이땅에 民主主義의 참된 씨를 뿌리고저 自由와正義의 깃발을 붉은피로 적시며 百萬學徒가 民權革命을 위해 총 궐기한지 한 돐을맞는 歷史的인 날이다。無能과 腐敗의 自由黨政權을 붕괴시키고 第二共和國을 誕生시킨 이「피의隊列」에本校三千學徒는 最先鋒에 서서 景武台로 突進함으로써「데모」를 決定的勝利로이끄는데 成功했으며 一名의 死亡者와 四十餘名의重傷者를 내었던 것이다。

本校重傷者40餘名

民主의꽃 盧熙斗君은散華

正義와 自由의 깃발 아래 맨주먹 붉은피로 獨裁와 싸운 義士들이 그날 쓰러진 英靈들에게 드리고 기리 위하여 市內 三十個大學과 八十七個中高等學校學生代表들은「서울特別市 四·一九 紀念行事學生準備委員會」를構成하고 오는 四月十九日 市內(場所未定)에서 嚴肅한 紀念式을擧行하며 한편 政府에서도 이날 上午十時 서울運動場에서 追念式을 擧行하며 紀念音樂會、市民慰安會等 多彩로운 紀念行事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昨年 四月十九日 本校 三千學生은 上午十時 校庭을出發、乙支路四街를 거쳐 內務部앞、國會 事堂앞을 遊過하여 警察의 곤봉최루탄 연막탄、實彈等의 세례를 받으면서 一路 景武台로 突進、法科의 盧熙斗君이 비롯한 四十餘名의 學生이 重傷을 입어 逆義洞一帶를 피로물들였던 것이다。그날 死亡한 本校生과重傷을 입은 學生의名單은 다음과같다

▲死亡者▼

盧熙斗(法四)

▲負傷者▼

金胖友(農經二) 金相元(英卒) 文慶鎬(英四) 金萬榮 朴鍾九(經三)

「東友塔」不遠除幕

新銳彫刻家金·崔兩氏製作

本校 學生自治委員會가 總豫算 三百餘萬圜을 들여 昨年 十月中旬에 着工하여 지난 七日로 竣工을 본「東友塔」은 本校의 四·一九革命記念塔으로 昨年 四·一九民主祭典에 젊은피를 아낌없이 바쳤든本校 故盧熙斗(當時法三)君을 慰靈하기 위한 것이다。

新銳彫刻家 崔起源 金泳仲 兩氏에 依해서 製作된 이塔은 우리나라에선 가장 새로운形式이다。韓國古有의 塔形을 밑바탕으로 하여 現代的인 感覺과 象徵美를 잘 處理한것이라고 하는데 塔基盤은 鷄卵型이며 塔身은 竹柱型으로서 이루어졌다。

한편 同塔은 全體的으로 慰靈的性格을 띄우고 性格을 띄우고 있으며 塔身最上部門의 表示는 本校의 傳統을 表現한 것이고 塔身 兩側의 二人群像은 그를 追慕함을 뜻하는 것이다。또 그밑에 鐵造彫刻은 三人群像으로 가운데 空間은 無限한 飛躍을 말하는 것으로써 東國의 永遠한 發展과 躍進을 意味하는 것이다。

革命重傷者八名에奬學金

昨年二學期부터, 被害狀況參酌코

四·一九革命當時 重傷을 입은 八名에 對해서 校當局은 지난 九三年 度 二學期부터 登錄金 全額을 免除해주는 特典을 베풀고 있다

四十餘名의 校負傷者 中 登錄金全額免除의 特典을 받게된 八名의 重傷者는 아직도 病床 生活을 하고 있는 農經科의 金胖友君을 위시하여 身體不具學生으로 家庭事情、負傷으로 인한 精神的 身體的 諸被害를 참작、昨年度에 選定된 八名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文慶鎬(英四) ▲朴鍾求(經三) ▲金萬榮(商) ▲李基元(英四) ▲鄭亨泰(法三) ▲崔烈(政三) ▲朴弘奎(農三) ▲金胖友(農經二)

禪武部入部式

12回部員72名募集코

禪武部는 過하여 人格을陶冶하기 위한 本校禪武部修鍊館에서 午四時 五十分부터 同 入部式을 擧行하였다

三月二十日부터 四月十日까지 二十日間에걸쳐 募集된 七十二名의 새部員을 맞아 드린이날 同式은 新舊全部員이 모인속에 閔雲植師範과 韓應國體育館監督의 격려사에이어 敎授의 격려사에이어 四 終歌및 部員宣誓가 끝난 다음 閔師範과韓

→에 찾으라。그날革命의 最先峰에 섰던 三千 東國健兒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하며 어……◇
떻게 學究的인 方向에서 이 貴한 精神을 살려야 할까。四月의 페넉쓰—。그들의 不屈의……◇
가슴마다의 決意는 어떤 狀況과 不條理에서도 健全해야 되겠다。革命을 여러 方面에서 現……◇
實化하고 革命위에 오는 諸課業을 完遂하도록 促求하며 思想的秩序를 整理하기 위하여 여……◇
기 多漢한 特輯을 通해 摸索하는 所以가 있다。(編輯者) ……◇

4月革命의 性格과 趨向

高 柄 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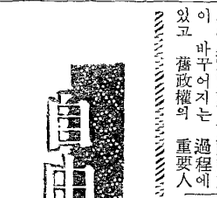
〈寫眞說明〉 通義洞에서 東大生에 게 쫓기어 後退하는 警察官들

李 東 華

無能性과 腐敗性만露出
諸後進性은 不幸을 自招
混亂克服 能勢를 早速히

旗手없는 革命
期待와 失望은크고·言論自由만은進展
革命的主體勢力이 되지못한執權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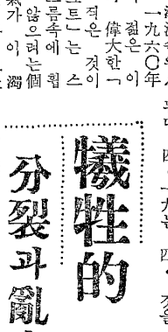
李 箕 永



自由와似而非自由
〈革命後一年의 敎訓〉

李 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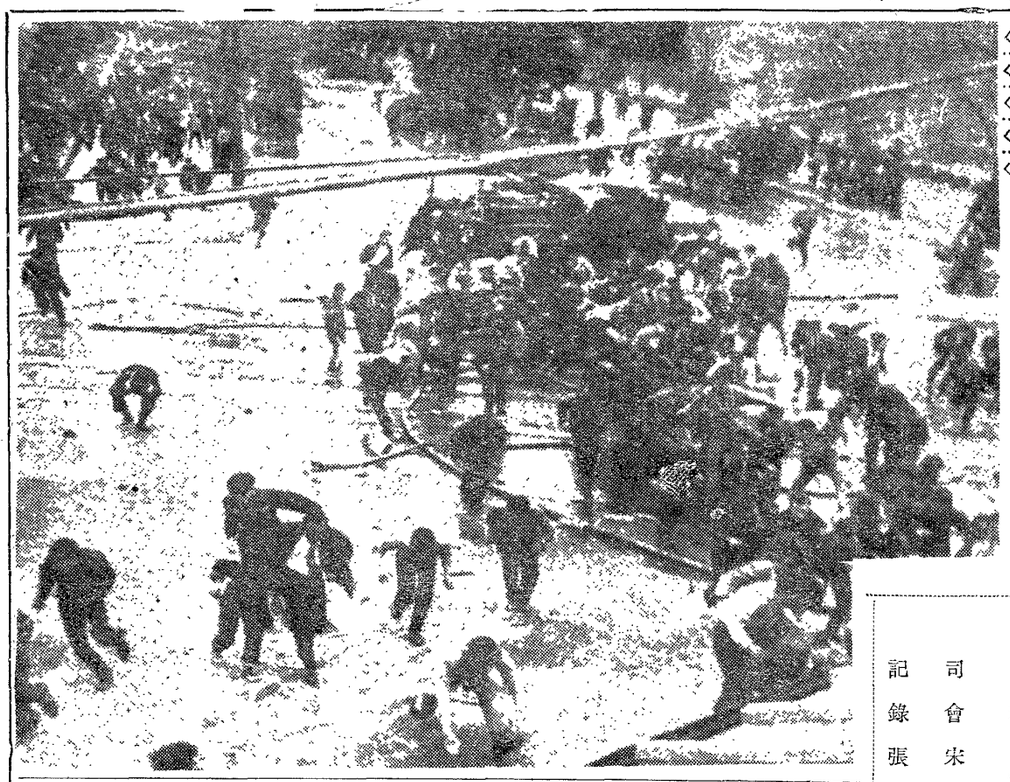
犧牲的 精神이 分裂과亂立의自由만盛行



廣告下命은
電話 ②1685.6.7 ②8611.2
東大時報社廣告部로

◇……성난 獅子의 四月—。우리 젊은 隊烈의 피로 ……었던民權을 도로 찾은 四月 革命 한돐을 맞는다、不義와 不正은 죽음으로 拒
◇……否하고 學問의 探究에 앞장을 서온 젊음—。無氣力 했던 旣成世代에 眞實과 正義의 鍾소리를 들려 주었던 성난 물결의 그날
◇……은 다시온다。十二年의 獨裁는 무너졌건만—。그러나 高貴한 그精神은 旣成秩序와 낡은 年代의 固陋한 指導力에 依하여 짓밟혀
◇……오히려 갖은 悲劇과 混亂만을 增大시키고、있는 形便이었다。純粹한 氣魄과 肉彈으로 獨裁를 무너뜨리고 第二共和國의 새 아침
◇……을 뜻 깊이 樹立하게 한 오늘、다시 썩은 것이 움트고、우리 ……억누르는 政治가 胎動한다면 죽어간 英雄들의 피의 값은어→

경고



◇日時 四二九四年四月十一日 午後三時
◇場所 本社會議室
◇參席者 金基洙(本校法政大敎授)、趙國衡(政治科四年)、羅明烈(政治科四年)、秋福炳(英文科三年)
◇司會 宋在甲(本社編輯長)
◇記錄 張文平

돌아보고 來日을 摸索한다

座談會 — 革命一年을 말하는 座談

오는 十九日에 우리는 四·一九革命一週年記念式을 지내게 된다。이것은、革命을 이룬지도 이미 一年이 지났음을 意味하며、全國民으로 하여금 지난 일을 돌아보고、보다 나은 來日을 模索하게 하는 契機로 될 것이다。그러한 意味로써 座談會를 열어 보았다。

別表에 全國大學敎授團 二五·二六 데모 때에 參席하신 法政大學 金基洙 敎授를 本校 敎授 趙國衡 敎授를 傷學生 羅明烈君 및 孝子洞 路上까지 追擊했던 二名의 學生 을 動員했다。

먼저、四·一九革命의 遠因과 近因에 對해서。둘째로、四·一九의 性格을 槪念的으로 規定하자면 「革命」이랄 수 있느냐。셋째로、革命後의 諸般情勢에 對해서。넷째로는、革命後의 學生運動과 앞으로의 方向에 對해서。끝으로 今後의 諸問題 等等이 論議되었음을 밝혀둔다。

(編輯者)

司會—마쁘신데 이렇게 들 나와주셔서 感謝합니다。벌써 一年이 지났군요。이 一年동안 國外에서는 勿論이지만 國內에서도 적지않은 變化가 있었읍니다。

먼저 李敎授 近因과 遠因에 對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글쎄、遠因이라고 할 것 없이 李政權이 十二年 間 獨占하고 政權을 獨裁的으로 長期間에 걸쳐 政權을 實現하자면 自由黨이 政權을 쥐받침하여 政治力을 動員하여 權力을 獨裁的인 政治力을 勢道 가、하여튼 獨裁的이었다는 事實을 말할 수 있읍니다。그래서 李政權 自由黨의 勢道가 極에 이르고、政治는 正道에서 벗어나 國民들이 모두 憎惡와 嫌惡를 갖게 되었고、反感을 增大하여 現實的인 火線이 되어 그 憤 導火線이 된데 馬山事件이 發端한것이었지。

內가 四·一九 直後 馬山엘 갔었는데、거긴 前부터 民主黨組織이 아주 相當히 固 程度로 鞏固한 편이었요。그래서 民主黨은 選擧結果를 빤히 計算하고 市民들도 마찬가지지 勝算이 있었는데 그만 自由黨이 失手를 또 했어요。自滅하기 싫었다면 거기에서 만이라도 不正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텐데、政權維持에만 눈이 뒤집혔었겠다。그 너무 甚하게 不正한 짓을저질렀으니 市民들의 憤情이 달라질 수 있지。그런데 다가 警察은 市民들에 對해서 武力行使를 했으니 市民들이 蜂起한 거예요。

司會—그러니까 그 馬山에서부터 民衆의 蜂起는 始作되었고 全國各處로 擴大되어 學生 的인 것으로 퍼져 있읍니다。그런데 뭔 그런理由는 없을가요。또 있다면 統一 金—또 있다면 統一 馬山의 統一 아직도 近代社會라고 할 수 있는 氏族 社會라고 보다도 많거든요。

司會—네。좋은 말씀입니다。그럼 이번엔 學生들이 主要 敎授님의 見解 를 주세요。

司會—그러니까 그 學生들이 主要 敎授님의 見解를 주세요。

趙—그런데 왜 그일을 問題 삼는냐、하는 것이 있읍니다。

司會—그러니까 젊은이 들은 反擬했다。…

趙—이것겠죠。

司會—그러니까 젊은이 들은 反擬했다。…

趙—그런데 왜 그일을 問題 삼는냐、하는 것이 있읍니다。

司會—네。結局 獨裁政權의 不義와 不法과 不正과 勢道政治에 對해 亦是 비슷한 느낌이면서도 反擬하기에 對하여 있었다는데 있읍니다。그리고 理由가 있읍니다。그리고 旣成世代에 對해 있읍니다。

司會—네。結局 獨裁政權의 不義와 不法과 不正과 勢道政治에 對해 亦是 비슷한 느낌이면서도 反擬하기에 對하여 있었다는데 있읍니다。그리고 理由가

다시 四月은 나의 革命으로

새로운 希望과 覺悟를 갖자

吳武雄

四月은 잔인한 달이라고 表現한 詩人이 있으나, 一九六〇年 韓國의 四月은 民主守護의 달이요, 民權確生의 달이요, 따라서 歡喜와 決意의 달이었다。四月은 바로 學生義擧에 의해서 獨裁政權으로부터 國民의 自由를 爭取한 歷史上 가장 意義 깊은 달이기 때문이다。이 四月의 革命은 政治面에서 뿐만아니라 社會, 文化, 精神面에도 획기적인 變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四月革命의 주인공이었던 젊은 世代가 어떻게해서 革命의 先鋒을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언급하고 이 젊은世代의 精神的 革命爲임을 설명하자。

憤怒는 革命으로 政治的

일찌기 젊은世代는 無能하고, 現實的인 利害관계에 눈 밝은 「獨裁」라는, 비난을 旣成世代에 의해 수 없이 받아 왔다。

사실 젊은사람이 젊은사람으로서 기백과 포부와 大鵬의 遠望이없는 나약한 「버림받은 世代」이었다。

불론 여기에 充分한 이유가 없을수 없다。그러나 젊은世代가 기성에게 버림 받았으며, 또 그 버림 받은 위치에서 克服할 노력은 커녕 오히려 前世代에게 아부하고 약간의 利得으로 만족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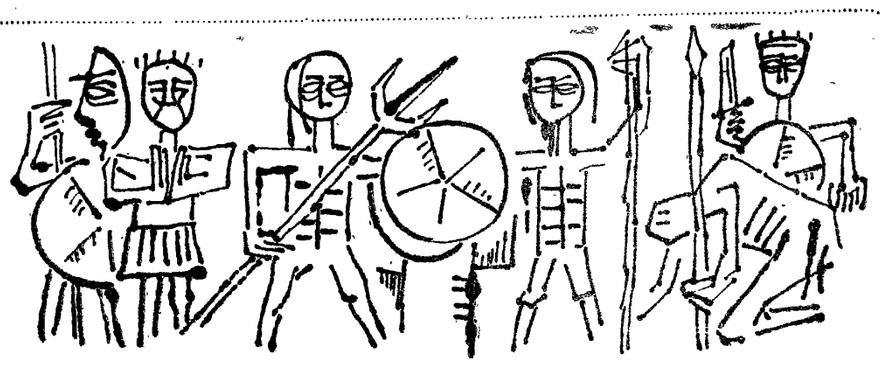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그것은 젊은이의 대부분이 기본 識라고 볼수밖에없다。그러므로 젊은世代의 腐熱과 知性은 즉지 않고 복발되어 다시 젊은 轉換시켰다。

그것은 四·一九學生義擧이다。이 四·一九學生義擧를 결정적으로 화선은 二月二十八日大邱學生 데모였다。學生의 용감한 데모가 抗拒가 國民의 이와같은열 정을 크게 자극으로 전해지자 이어서 서울 運動場 앞에서 高等學生, 水原의 學生 시위 있고, 各地에서 反政府 시위가 일어났으며, 三·一五 선거당시 馬山學生은 경찰과 충돌하면서 싸웠다。學生의 平和的인 데모는 나도와 같이 이 데모는 마산시민을 일깨우는 『정부는 책임지고 물러가라!』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라!』 『마산시민 궐기하라!』 목이 터져라고 외치다 口號를 외치다 乙支路四街에서 十時二十分 데모대는 연도에 선 市民들의 열열한 성원을 받으며 市廳을 向해 뛰기 시작했다。 어느 상점에서 목마른 학생이 물을청했을때 주인은 사이다 한 병을 내놓았다。 이때 한 학생이 『이것은 우리 데모를 돕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景武台로 돌진하였다。 그때 수없이 쏟어지는 친구의 시체를 넘어 正義를 守護하기위해 죽음을 달갑게 원한 젊은이들은 실로 영웅적이었다。이들을 가리켜 나약하고 젊은이들이 아니었다。 그대로 그들은 글자 그대로 「獨裁政治를 지양하라는 民主政治를 외치면서 景武台로 돌진하였다。

黨의 馬山 데모隊를 선동으로 남조하고 金朱烈君의 참혹한 시체를 보고 분노하여 마다에 던져버리는등 사람으로 할수없는 악질만행 四·一九 서울의각 大學 三萬名이 憤怒의 물결과도 같이 怒한 獅子들이었고, 正義에 불타는 友情에 서였다。 이들의 투쟁은 한 결과이며 國民의 政治를 행복을 증진하는 精神的土臺가 튼튼하고, 부번이된 價値가 있어야함은 두말을 要하지않는다。

革命은 남을 고, 내가 잘살기 위해 서니다。루워지는 것은아 敷者의 권리와 全體 自由가 독재에의 必然的 하여 일어나는 권리와 으로 것밖일때 자유의 행사이며, 이것 精神的 革命으로부터 마련하게된 土臺를 다지는 것이다。

四月 혁명의 一週年을 마지하여 우리는 누구나 「나」를 眞理에 까지 「나」의 革命으로 부패하는 것은 「나」의 自身이 건전치 못한 精神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의 熱地

申瓚均

니희는 먼저 그나라와 그義를 求하라。 바이블

데모가 지나간 거리 내 가난한 이웃들은 빼라대신 눈물을 흘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엔 부서져 가는 어린 발자국이 남고 「아랏샤」의 서글픈 해가 지는 오후 지구의 저편인 코네아는 친란한 혁명을 이야기 하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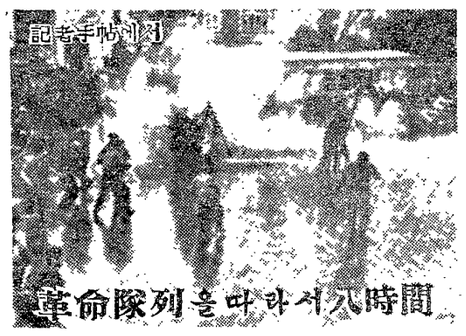
—그날 하늘이 붉게 타오든 경무대 어구에서 안으로 갇히었든 뜨거운 地熱로 가뿐 숨을 헤이며 뛰어 들은 네 죄 숨을 이마에 이어온 조국이란 성스러운 이름도 文明이 주고간 전챠길위에 뿌려진 빨간 義血도 말끔히 가신 또 사월이 되어 始原의 하늘은 열리어 오드니 새삼 햇빛은 한밤의 회열로 가고 없는 冰山을 녹여 모든걸 삼키고 할일 없이 바다로 흘러

恥辱의 가슴으로 천년은 벙어리가 되었다。 손끝에 짐쳐 가는 六大州와 五大洋 비들기 가슴을 비벼 가며 닌군 할아버지를 試行할수가 없어 꽃은 피어 났는가。 아니면 시들어 갔는가。

聖스러운 隊列에서 殉敎를 배우고 낡뒤 우리는 한줌 흙이 되었다。 쌓여 大地를 이루고 이름없는 땅덩이가 地圖위에 英雄과 武器의 자리에 必然은 한가지 臨終이말뿐。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 나간 地標위엔 눅으며 나부끼는 깃발 깃발들 아세아 북판에서 홀로 제몸을 누구의 念願아래 몸부림을 向하는가。

사월은 다시 오고 더운피 흘린 그날이 다시와도 눈물 글썽이든 네가 고함 지르며 쓰러져간 내일은 사뭇 멀기만 하다。 (同門)

革命의 달 四月은 왔다



四月十九일, 어느 누가 잊으랴 쓰러진민주주의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던 그날을 부정과 불법앞에 피를 쏟던 그날을 무이 흘린 찬히 깃발인 旗手들의 목숨을! 우리는영 용감하여야 한다。 또 스스로 「나」의 革命에도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 나아가자! 『나』의 革命의 역군이고자 해야 한다。 왜그러냐하면 四月 革命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젊은세대가 스스로 自己를 反省할때 自己의 革命은 아직도 요원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귀한 피를 뿌린 그 義血의 代價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또한 우리의손으로 構築한 第二共和國의 將來를 보다 光輝롭게하기 위해서도 우리 젊은世代의 精神的 革命이 요청되는 바이다。

날, 四월은 다시 왔다。 여기 四·一九의 첫눈을 맞아 當時 「데모」대의 최선봉에서서 부정과부패 景武台를 향해 돌진하던 本校 「데모」대의 용감성을 기가 막혀 본대로 소개한다。 四월十九일 오전十時。 「데모」를 하자 아무런 약속도 없었건만 학생들은 속속 운동장으로 모여 들었다。

어느 누구의 얼굴에도 「수먹九九政治」 「데모政治」에 對한 울분과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자! 自由黨 타도하자!』 『가자! 李 부정과 불법을 밥먹듯하며 부패와 기만을 일삼는 자유당 정권을 그대로 두기 에는 우리들의 젊음이 너무나 벅찼다。 三千學生은 스크랩을 짜고 나갔다。 校門앞에는 白車두대와 총검 찬 五十여명이 길을 막았다。 분개한 三千학생들이 『악질경찰 가라!』 『의치대 연락을 계속하고 도하자!』 『나